우리의 家章

靑松沈氏宗報

發行人 : 會 長 沈 宜 洛
編輯人 : 文化理事 沈 載 緖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印刷 : 청송그래픽스
(02)2261-0772

非 賣 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회장단회의 개최결과 보고

△ 의락 회장께서 3월 9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국도호텔)

◇일시 : 2012년 3월 9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도호텔 2층 회의장(을지로 소재)
◇참석 :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배석 : 총무이사, 재무/문화이사, 관리부장

▌會議順

1. 會長人事
2. 相德 新任副會長 紹介 및 人事
3. 案 件
   1) 2011年度 事業實績報告와 2012年度 事業計劃報告
   2) 監事報告書
   3) 2011年度 決算結果審議와 2012年度 豫算(案)審議
   4) 利益剩餘金處分(案)
   5) 其他 宗務의 審議

▌보고 및 결의사항

◎ 2011年度 事業實績報告

1. 5處墓所 및 2壇所의 守護
▷中臺山 墓所 山下(靑松)
管理舍 撤去 및 位土 整地(田 : 110坪 / 畓 : 177坪)
*사업비 : 1,710천원
▷2世祖 墓所 (咸悅)
管理舍 附屬 建物 倉庫 設置
*사업비 : 2,080천원
▷3世祖 墓所(安城)
墓所 入口 案內 標石 및 駐車場 造成
안내판 : 높이280㎝(1,500 천원)
주차장 : 151坪(13,000 천원)
*사업비: 14,500천원
▷4世祖 墓所(連川)
靑城伯 묘소 補修 및 進入路 整備
묘소에 잔디가 들떠있어 잡초 제거 후 복토
진입로에 쌓인 자갈 · 모래 제거
*사업비 : 1,000천원
▷2壇所(철원, 靑松)
철원 奉翊公, 靑松 岳隱公 壇所는 奉翊公 및 岳隱公 宗會에서 守護에 萬全을 期하고 있음.

2. 宗財의 管理
2011年度 決算報告書에 있는 것과 같이 前年度 對比 전혀 變動이 없음.

3. 敎育·文化
▷宗報 活性化를 爲하여 編輯委員 16名의 委員과 委員長(相殷 副會長)을 委囑하였음.
▷ 巡廻 敎育
日 時 : 2011. 10. 29.(土)
場 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부산진경찰서 직무교육장
參與人員 : 약 150여명
敎育內容 : 大宗會 紹介, 대종회 홈페이지
현조사적 및 忠孝思想 特講

4. 執行部 構造 調整
大宗會의 健全財政을 爲하여 2011年 7月에 常勤理事 3名을 2名(總務1名, 財務/文化1名)으로 줄이고 給與等도 適正水準으로 調整하였음.

◎ 2012年 事業計劃

2012년도 사업계획은 5월 종보에 4월 27일 정기총회 결과 공지시 게재할 예정입니다.

◎ 2011年 決算報告

▶요약 재무상태표 (2011. 12. 31)

(단위 : 천원)

科 目	宗事會計(一般)	收益事業會計(特別)	合 計
자산(예금/부동산)	8,643,715	3,083,294	11,727,009
부채(미지급/임대보증금 등)	136,185	781,925	918,110
자본금(자본금/이익잉여금)	8,507,530	2,301,369	10,808,899

▶요약 손익계산서 (2011. 1. 1 ~ 2011. 12. 31)

(단위 : 천원)

科 目	宗事會計(一般)	收益事業會計(特別)	合 計
수 입	232,266	214,431	446,597
지 출	204,552	214,579	419,131
법인세		11,782	11,782
당기순이익	27,714	-11,930	15,784

▶(종합) 수지예산(안) (2012年度)

(단위 : 천원)

科 目	宗事會計(一般)	收益事業會計(特別)	合 計
수 입	217,510	221,242	438,752
지 출	201,728	159,860	361,588
당기순이익	15,782	61,382	77,164
법인세		12,000	12,000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15,782	49,382	65,164

◎ 其他 報告事項

1. 2013年度부터 獎學金 支給
1) 2011년 구조조정 등으로 7천만원의 재무개선을 이룬 성과로 종사회계(일반)의 미처분 이익잉여금(112,269,854원) 중 5천만원을 장학금 지급준비금으로 처분함.
2) 2012년부터는 매년 5천만원 이상 흑자운영이 가능함.
3) 2012년도에 완벽한 장학금 지급준비(장학위원회 규약제정, 장학위원 구성)를 끝내고 2013년부터 장학금 지급 시행.

▶2011년도 주요경비 지출내역 (2012年度)

內 譯	金 額	備 考
40년 약사대 잔액	20,000,000원	총 발간비 : 26,000,000원
5처묘역 정화공사	27,000,000원	5처묘소 : 19,000,000원 / 청주옥상 : 800,000원
임원(3명) 퇴임 위로금	15,000,000원	총무 · 재무 · 문화이사
찬경회관 방수공사 외	21,247,000원	옥상방수, 옥상 족보보관창고, 사무실바닥교체 외
청송군수/장학금전달	5,000,000원	소헌공원 정화공사 감사패 전달시
합 계	88,247,000원	

▶수입증대 항목 (2012年度)

(단위 : 천원)

內 譯	金 額	備 考
인건비 절감	38,000	상임이사 1명 감축
임대료 인상	16,000	찬경회관, 청송회관
법인세 절감	7,000	은행이자법인세/분리과세 → 종합과세신고
잡수입	4,320	청송 임대료 · 부가세 3년간 대납분 회수
합 계	65,320	

公 靑松沈氏大宗會 第 42回 定期總會 開催 告

2012年度 第42回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공사간에 다망하실줄 사료되오나 많이 參席하여 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출구
셔틀버스 운행(혜화역~儒林會館)
(운행시간 ⇨ 10:00~11:00)
▶ 연락처 : (02)2267-7857, 2267-9339

※별도로 개별 통지가 없으니 유의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日時 : 2012年 4月 27日
(金曜日) 오전11時
◇場所 : 서울 종로구 명륜동
(유림회관 三층)
◇電話 : (02)774-0677
◇會費 : 1만원

◎ 附議案件
- 2011年度 監事報告書
- 2011年度 事業報告
- 2011年度 決算報告 承認
- 2012年度 事業計劃報告
- 2012年度 豫算(案) 承認
- 其他 宗務의 審議

2012年 3月 30日

靑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宜 洛

5처 묘소 제향의 봉행과 헌관의 추대

沈 宜 洛
大宗會 會長

우리 대종회 정관 3조에 5처 묘소의 수호와 제향의 봉행은 대종회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관의 추대는 대종회 집행부(회장, 상임부회장, 상임이사)에서 현지 유사와 의논하여 초헌관에는 대종회장을 아헌과 종헌관에는 대종회 고문, 지도위원, 회장단, 파종회장, 지방 종회장 중에서 년고항고(年高行高)와 파종회별 등을 고려하여 선임 추대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회장 유고 불참 시에는 참사(參祀)한 전기(前記) 임원중에서 초헌관을 선임 대행케 하고 있으며
2. 회장이 참사(參祀) 하였으나 헌관을 사양(여러 사람이 고루 하도록)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선임 하였으며
3. 명구회장 재임 시 주로 청성백 묘소의 춘추향(春秋享)에 참사(參祀) 하였는데 명구회장은 고위(考位), 당시 부회장인 저는 배위 초헌을 맡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으며 명구회장의 사양으로 제가 고위초헌봉사(考位初獻奉祀)를 한 사실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4. 제가 회장 직무대행 기간인 2007년 추향 때는 제가 5처 묘소에 초헌봉사를 하였고, 2008년 춘향 때는 참사는 하였으나 초헌을 사양하고 다른분께서 대행 하였습니다.
5. 이상과 같이 5처 묘소의 헌관 선임에는 직손(直孫), 방손(傍孫)의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2 年 3월 30일

宜 洛 識

춘·추향(春·秋享)에 임하는 자세

제사(祭祀)는 오늘 우리를 있게 해주신 조상님에 대한 고마움과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의 정성을 봉헌(奉獻) 하는 효(孝)와 숭모(崇慕)의 보본지행(報本之行)의 의식(儀式)입니다. 우리민족의 정신문화이자 길이 보존되어야할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며 자녀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깨닫게 하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주며 친족간에 화합과 친목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가분 들과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한 핏줄임을 재확인하고 선조님의 묘전(墓前)에서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시재를 봉행하는 기쁨의 장(場)이 열리는 4월을 맞이하였습니다.

◈ 춘·추향 (春·秋享)에 임하는 자세

첫째, 의식(儀式)은 더욱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집례자의 진행 중에 작은 소리지만 종종 잡담이나 진설 또는 절차상의 차이를 지적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두서미나 동미서두, 조율이시나 조율시이 等 입니다. 가정이나 지역에 따라 제(祭)의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가례(家家禮)인 것입니다.

제(祭)는 형식이나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정성을 봉헌하는데 더 큰 뜻 이 있으므로 조그마한 실수는 덮고 지나가고, 지나치게 절차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止揚)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잔을 올릴 경우 집례자가 홀기에 의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인은 진행중에 헌관에게 굳이 안경을 벗으라고 지적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진행의 흐름을 막을 뿐 만 아니라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게 됩니다.

예서(禮書) 어디에서도 안경을 쓰지 말라고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모두가 보편타당한 상식선에서 이루워지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다면 예(禮)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 것이며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고 선글라스를 썼다면 이는 예(禮)가 아닐 것 입니다 정장(正裝)을 하는 것,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는 것. 빨간 넥타이를 피하는 것 등은 모두 상식적인 사항들입니다. 이번 춘향(春享)부터는 보다 더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흠향(歆饗)하실 수 있도록 모든 종인이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친족간에 화합과 친목을 나누는 기쁨의 장(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시향(時享)은 멀리 떨어져있던 일가들이 함께 모여 선조님께 제(祭)를 올리고 함께 음복하면서 친족간에 화합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친교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줄 때 나눌 수 있는 것 입니다. 항렬이 높고, 년령이 높다고 해서 무례한 언행과 큰 목소리를 낸다면 화합을 해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묘전(墓前)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대화는 피하고 선조님을 선양하는 대화나,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는 대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이 친족간에 화합을 조성하는 일이며, 일가 간 에 묶였던 매듭이 있었다면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향이 심문(沈門)을 하나로 묶는 촉매제 역할의 계기로 만드는 단합의 장(場)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많이 참석해야 하겠습니다.

대종회 40년 약사를 편집하면서 70년대, 초대 故 성택(聖澤)회장님 시절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연천 지역의 4세조(四世祖) 청성백 할아버님의 시향 시 전국에서 몇 백명이 모이고 버스도 몇 십대가 와서 헌병의 호위와 교통정리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청송보(靑松報)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준비한 도시락이 모자라 곤혹을 치루었다는 원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전국 종인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룬 그 광경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또한 그 당시 성택회장님의 덕행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조상님을 받드는 효의 마음과 친족간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전국에서 모인 일가들의 아름다운 광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제는 기쁨으로 많이 모이고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 교감을 나누고 정을 나눔으로서 친족간에 연대의식도 가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70년대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룬 우리 심문의 시향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번 춘향시(春享時)부터는 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대종회 문화이사 –

◆ 2012년 春季 時享日 案內 ◆

世	휘(諱)	陽曆	曜日	陰曆	所在地
始祖	文林郎公(휘 : 洪孚)	4월 5일	木	寒 食	靑松邑 덕리 산33 보광산
	中臺 墓所	4월 5일	木	寒 食	靑松邑 부곡리 산1 중대산
二	閼門祗侯公(휘 : 淵)	4월 1일	日	3월 11일	咸悅邑 남당리 산64-1
三	靑華府院君(휘 : 龍)	4월 3일	火	3월 13일	安城市 당왕동 산19-6
三	配位 金氏	4월 3일	火	3월 13일	安城市 도기동 산64
四	靑城伯(휘: 德符)	4월 5일	木	3월 15일	漣川 미산면 아미리 110
四	配位 淸州宋氏	4월 7일	土	3월 17일	淸州市 분평동 산8
四	岳隱公(휘 : 元符)	4월 15일	日	3월 25일	靑松郡 파천면 덕천 景義齊
五	安孝公(휘 : 溫)	4월 5일	木	寒 食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401
五	三韓 國大夫人	4월 4일	水	3월 14일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산32-1
六	良惠公(휘 : 石雋)	4월 10일	火	3월 20일	龍仁市 포곡읍 동막리
六	恭肅公(휘 : 澮)	4월 5일	木	寒 食	坡州市 월롱면 영태리
王后	昭憲王后	4월 28일	土 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王后	仁順王后	4월 22일	4월 넷째 일요일		노원 공릉동(康陵)
王后	端懿王后	3월 25일	3월 넷째 일요일		구리시(동구릉 內 惠陵)
	淑容沈氏	4월 15일	4월 셋째 일요일		은평구 진관외동
	世宗大王	4월 8일	日曜日		驪州郡 능서면 英陵
	宗廟大祭	5월 6일	5월 첫째 일요일		종로구 종로3가 宗廟

제1차 백운(白雲) 심대윤(沈大允)선생 학술발표회 개최

■ 주최 : 백운(白雲) 심대윤(沈大允)선생 기념사업회
■ 일시 : 2012년 2월 27일(월) 오후 2시~6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사회 : 김대곤(한국경제신문 국장)
■ 축사: 조순(전 부총리), 심대평(자유선진당 대표)

• 주제1 : 백운 심대윤의 철학사상과 현대적 의미
  – 발표 : 심우섭(성신여대 명예교수)
  – 토론 : 오석원(성균관대 유학대학장)

• 주제2 : 백운 심대윤(利사상), 담헌(擔軒)이하 곤(識사상)학문적 탐구를 통한 기업의 모순 극복
  – 발표 : 이재윤(중앙대 명예교수)
  – 토론 : 이상주(청주대교수)

• 주제3 :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와 백운 심대윤의 사상
  – 발표 : 심백강(민족문화연구원장)
  – 토론 : 김선형(인천대 부총장)

우리 문중의 자랑인 심대윤(沈大允) 공(公)은 영조때 영의정을 지낸 심수현(沈壽賢)공의 고손(高孫)이다. 공(公)은 19세기 경제학의 대가(大家)로서, 11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겨 다산 정약용에 필적되는 분이셨으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대윤공의 학문사상의 종지(宗旨)는 「利」에 두고 있다. [「도가 성립하는데 필히」 利에 근본하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로울 「利」 한 글자는 만물의 몸(體)이 되고 만선(萬善)의 本이 되나니 천지의 큰 덕이요 성인의 큰길이라(周易象義占法)고 주장하였다.

최근 우리 심문(沈門)인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이 앞장서서 선조 선양사업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고마운 일이며 이번 학술발표회 기획도 심 원장에 의해 이루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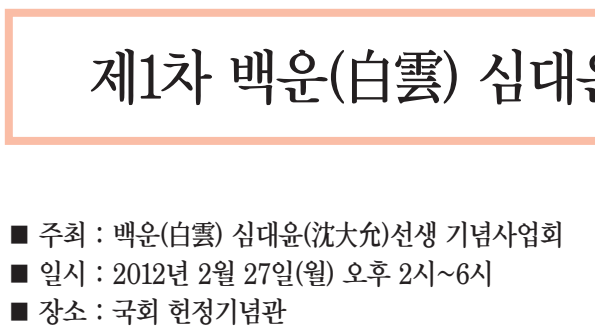
이날 학술발표에는 100여명의 종인과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바쁘신 일정에도 대평(大平) 자유선진당대표와 조순 전 부총리께서 축사를 해 주셨고, 심우섭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재윤 중앙대 명예교수,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의 논문 발표로 심대윤 선조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었다.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장은 「백운 심대윤은 누구인가」 발표 논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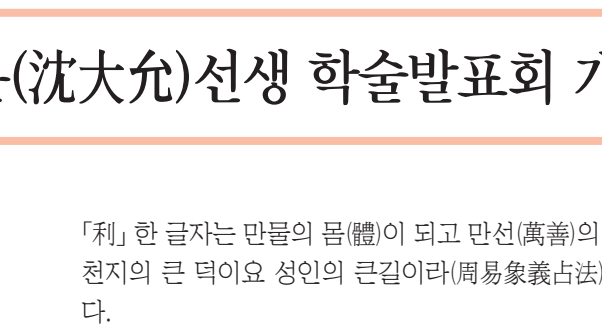
1) 三韓 經學의 빛
2) 性利學의 창시자
3) 동양의 아담스미스
4) 세계최초의 三利思想, 福利主義 제창자로 요약 하였다.

□ 백운 심대윤선생 학술발표회 찬조명단
대종회 회장(宜樂) : 1백만원과 축하화환 1점
청심회(靑沈會) : 1백만원
공숙공종회 회장(雄燮) : 50만원

– 대종회 문화부 –



△ 심대평 의원의 축사



△ 학술발표회 및 토론 모습

△ 대종회 회장님의 축하 화환 앞에서(벗곳종중회장, 고문, 대종회 문화이사)

沈영감 심민섭

남일 심수택 의병장

남일 심수택 의병장군께서는 1908년 3월 전남 함평군 신광면 원산리 덕동에서 거의(擧義) 하면서 강진 오치동 전투직전 "나를 따라서 조국과 겨레를 지키자"고 명령하면 의병 700 여명이 의병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군하였던 의병의 노래

나라없이 살 수 없네 나라 살려 살아보세
내 님 없이 살 수 없네 내님 살려 살아보세
조상없이 살 수 없네 조상 살려 살아보세
살 수 없다 한탄말고 나라 찾아 살아보세
전진하여 대놈 잡자 만만세 왜놈 잡기 의병만세

심남일 선생이 일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이 기승을 부리던 1907년 말 사랑하는 가족과 어린 학동들을 뒤로 한 채 의병으로 나서면서 지은 시이다.

초야의 서생이 갑옷을 떨쳐입고
말을 타고 남도를 바람처럼 달리니
만약에 왜놈을 소탕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모래밭에 죽어 돌아오지 않으리.

〈자료제공 : 남일 심수택 의병장군의 손 심만섭〉

△ 남일 심수택 의병장 영정

△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우리 가문에 향교 전교 두 분 추대

곡성군에는 곡성 향교와 옥과 향교 두 곳이 있다. 相溫 종인은(2010. 11. 23) 옥과향교 제35대 전교로 추대(심문에서 역대전교 9분 배출) 되었고, 滿燮 종인은(2012. 2. 6) 곡성향교 제30대 전교로 추대 되었으니 우리 가문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두 분은 심씨의 세거지인 곡성군 겸면 칠봉리 출신으로 청송심씨 곡성종회 지도위원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훌륭하신 조상의 유훈을 이어 받아 이 지역 유교문화의 전승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沈 相 溫
(玉果鄕校 典校)

沈 滿 燮
(谷城鄕校 典校)

초(楚)나라 심윤술(沈尹戌)將軍 이야기

평소에 나는 靑松 沈氏의 원초적인 뿌리가 막연히 中國이라는 것만 認知하고 구체적인 사실은 不知했었다. 이번에 "孫子兵法"을 재독하면서 春秋戰國時代(楚) 즉 3,000년 前 中國의 周나라에서는 沈氏가 생존하였으며 그것도 楚나라의 名 將軍으로 활동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때는 2,770년 전 中國의 春秋戰國時代 楚國과 吳國은 강대국이며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입힌 견원지간이었다. 春秋戰國時代는 석가모니(BC558), 공자(BC551)가 탄생했으며, 서양에서는 로마건국(BC753),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BC492) 시기이다. 이 시기에 남한의 96배나 되는 中國 천하는 15여개의 대소국가로 분할되어 자기 나라가 종주국인 周(하-은-주-춘추전국-진)나라 天子의 적통(嫡統)을 계승한 국가라고 상호간에 세력을 과시하는 弱肉强食의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楚 · 秦 · 晋 · 吳 · 衛 · 齊 · 越이 강대국이었으며 어제의 선린우호 국가가 오늘은 침입자가 되고 속국인 小國은 와신상담, 절치부심한 후 上國의 허점을 이용하여 침략, 처절한 보복을 감행하는 적자생존의 春秋戰國時代(BC770~221)가 550년간 이어진다. 또한 이 어지러운 시대에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에서 이탈하고자하는 사회적 열망이 " 孔子의 仁, 孟子의 禮, 墨子의 反戰 思想, 노자. 장자의 자연복귀 및 무위 자연사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사상의 황금시대"를 이루어 2,500년 후인 오늘날까지 사회적 윤리 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당시의 왕들과 장수들은 손무의 "병법서"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다.

오늘 날 中國의 남쪽에 강대국 楚의 기질 왕자는 王이 秦國과 전쟁 차 도읍을 비운 사이에 간신 비무기와 함께 선왕을 몰아내고 楚의 왕이 되며 비무기는 후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태자와 충신 오사를 북방으로 보내고 이웃 적국과 내통하여 역모를 도모한다고 왕에게 허위 직언하므로 평왕은 오사와 그 아들까지도 참수형(斬首刑)에 처한다. 오사의 차남 "오자서"는 일천금 후일 조 일만 석의 현상 수배자가 되며, 방이 고을 마다 붙으므로 이웃나라로 도피 하다가 楚와 앙숙지간인 吳나라로 망명하며, 수많은 고난 끝에 吳 합려왕의 신임을 얻어 왕의 모사(謀士)라는 중책을 맡으며 吳왕을 성심으로 보필하고 楚에 대한 복수의 一念下에 여러 전쟁에서 탁월한 전술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吳가 승리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므로 吳왕의 신임이 두터워진다.

그러나 오자서는 억울하게 죽은 父와 兄에 대한 楚의 평왕과 간신 비무기에 대한 복수에 절치부심한다. 어느 날 우연히 시골에서 孫武(孫子)를 만나 이야기 해보니 兵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범상치 않는 인물임을 알고 손무와 친분을 쌓은 후에 吳의 합려 왕에게 천거하여 손무로 하여금 전쟁의 전술에 중책을 맡게 한다. 과거 전쟁에서 楚에게 패배한 吳의 왕은 이를 설욕하고자 절치부심 하던 차 千軍萬馬를 얻은 생각으로 謀士 겸 智將 오자서, 將軍 겸 兵法家 손무를 선두로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두 나라 중간에 위치한 楚의 속국들을 침략한다. 이 때 楚의 왕은 전술, 전략에 탁월한 지식을 겸비하고 여러 전쟁에서 무공이 많은 심윤술(沈尹戌) 장군이 이끄는 15만 군대를 출전시킨다. 吳의 10만 군대는 楚군의 사령관이 沈尹戌 장군이라는 척후병의 보고와 楚군의 치밀한 전술과 엄청난 포위 함성에 吳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도망병이 발생하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위한 성을 버리고 군대를 철수한다.

(손자병법 : 전쟁의 상책: 적과 싸우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것. 중책 : 외교로 적을 물리치는 것. 하책 : 적과 직접 싸우는 것)

어느 날 楚나라 조정의 대소 중신들은 吳나라가 자주 楚를 침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자서"가 吳왕의 모사(謀士)로 있기 때문이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사와 아들을 참수형에 처하게 하고, 출세에 눈이 어두운 간신(姦臣) 비무기를 죽여야만 전쟁을 방지 할 수 있으며, 楚나라 백성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스럽게 살수 있다는 조정 중신들의 여론을 수합하여 상소문 대표자로 沈尹戌 장군이 앞장서서 楚왕에게 충언 하므로 재상 비무기는 참수형(斬首刑)에 처하게 되고, 아군의 전사자 없이 외적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공평하게 군졸들에게 분배하며, 또한 간신(姦臣) 비무기까지 제거한 沈尹戌 장군의 명성은 楚나라 전 백성들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다.(오자서의 전술 : 以夷制夷(이이재이 : 오랑케는 오랑케가 제압하는 작전))

이후 얼마 동안 戰爭없는 평화스러운 세월이 이어지다가 吳의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또 다시 楚와 전쟁을 하는데 방비가 허술했던 강대국 楚는 吳나라의 伍子胥와 孫武의 치밀한 전술에 패배하고 명장 沈尹戌 장군은 전사하며, 오자서는 楚왕의 시체에 300회 매질을 하며, 눈을 빼버리고 귀를 자라버리는 뼈에 사무친 한풀이 복수를 하고 楚와 부속 국들을 吳의 속국으로 만들어 많은 조공을 받치게 한다.

중원을 평정한 吳왕은 절세의 미인 "서시"라는 애첩과 주색에 빠져 국정은 문난해지고 조정 대신들은 당파와 분쟁으로 날을 보내므로 이런 혼란한 국정에 염증을 느낀 손무는 낙향하고 오자서는 왕의 御命에 反하는 忠言을 거듭하다가 괴심 죄에 걸리어 왕이 보낸 칼로 자결한다. 吳나라의 국정이 혼미한 이때 그동안 속국으로 온갖 수모를 당하던 이웃 越나라 구천왕은 17년 동안 군대를 양성하고 군량미를 저축하면서 절치부심,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면서 吳나라의 약점을 이용하여 焦土化시키며 남쪽 넓은 영토의 패권을 잡는다.

과거 越의 구천왕은 吳에 패한 후 복수의 일념으로 섶 위에서 잠을 자고 곰쓸개를 혀로 핥으면서 고기 반찬 없이 식사하고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했으며 혼인하지 않는 자는 벌하였으며 "와신상담" 이라는 고사가 여기에서 유래한다.

이후 15여개의 대소 국가가 얼키고 설킨 실타례와 같은 550년간의 春秋戰國時代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강력한 진(秦)의 정왕이 등장한다. 中國의 동쪽 齊 · 吳 · 燕에서 서쪽 秦까지는 수천리나 떨어지고, 변방의 열악한 자연 환경을 가진 秦나라는 광활한 草原이 동경의 대상였으며, 농수산물이 풍부한 제수(황하)와 장강 주변의 토지와 동해의 염전이 秦나라 백성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정복 지역이며, 고산준령과 황야에서 잘 훈련된 秦軍은 必死卽生의 각오로 동쪽의 楚 · 衛 · 齊 · 魯 · 吳 · 越 · 燕 등 대국을 점령하고 小國은 자진 항복한다. 秦의 정왕은 광활한 中國 天下를 10년 만에 統一하여 강력한 중앙 군주제를 19년여 동안 실시하면서 지방 마다 조금씩 다른 문자와 도량형, 화폐를 통일하고 과분한 조세 징수와 민심이반, 대규모 토목공사와 강제 노동력 동원과 농민 반란, 가혹한 법집행의 불만, 유생 탄압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정부 여론 조성, 각 지방의 12만 명문귀족들의 함양으로 강제 이주. 환관 조고의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정권장악 등이 秦 始皇帝 死後 거국적으로 일어난 반란(楚 · 漢戰)이 최강국 秦의 천하통일 19년이라는 短命을 가져온다. 최초로 천하를 통일시킨 秦의 始皇帝는 三皇五帝를 단축시킨 皇帝라고 말하게 했으며, 王이 자신을 말할 때는 "짐(朕)"이라 하고, 신하들은 "폐하(陛下)" 라고 말하도록 御命을 내리며 "짐, 폐하, 황제"라는 말이 이때부터 유래 한다.

(指鹿爲馬: 진시황 사후 정권을 잡은 "환관 조고"는 어전회의에 앞서" 사슴을 놓고 말"이라고 호해 왕에게 告하여 조정의 대신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묵시적으로 과시하고 사슴을 사슴이라고 告하는 신하는 야밤에 암살 당하여 조정의 대소 원로들은 조고의 권세가 두려워 有口無言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朝鮮 팔도에 살고 있는 "沈氏" 성을 가진 後孫들은 先祖님들이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즉 3,000년 전 주나라 때 부터 살아온 유구(悠久)한 歷史를 가진 名門 "沈氏 家門"라는 自負心을 가져본다.

* 참고문헌: 列國誌, 楚漢誌, 中國歷史, 孫子兵法
孫子兵法(동해출판 / 차평일평역: P265, 305, 331, 341, 317, 318, 319, 322, 339, 346)
* 참고사항(중국 역대 왕조 및 장군, 모사)
하(BC5,000~1,600)-은-주(BC1,110~770. 재상: 강태공, 백이숙제등장)
--춘추전국(BC770~221. 秦 · 晋 · 陳 · 楚 · 衛 · 吳 · 越 · 燕 · 齊 · 魯 · 鄭 · 宋 · 曹 · 蔡)
--진(시황제)--한(BC202. 유방왕. 장량모사. 소하. 한신장군. 번쾌 / 초: 항우왕. 범증모사. 종리매)
--삼국시대(위: 조조왕 / 촉: 유비왕. 장비. 관우. 제갈량모사/오: 손권왕. 동탁)
--남북조--수--당--송--원(쿠빌라이)--명(주원장)--청(이자성. 누루하치)

곡산공파 광주 금당산 휘 훈 14대손 沈 源 善

삶과 유머 그리고 향기

♣ 도둑의 변명

왜 도둑질을 하십니까?
-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 혼자 하십니까?
- 믿을 놈이 있어야지요.

언제가 가장 슬펐습니까?
- 훔쳐온 물건 팔러 나갔을 때 누가 훔쳐 갔을 때지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 본전치기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직업란에 무엇이라고 씁니까?
- 귀금속 이동 센터라고 씁니다.

♣ 뇌물의 효과

꾀꼬리, 부엉이, 까마귀가 서로 자기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자 호랑이가 심판자가 되어 15일 후에 판단을 내리기로 한다.

- 까마귀가 15일 동안 매일 쥐를 잡아 호랑이에게 식사거리로 준다.
- 호랑이가 판단하기를 꾀꼬리는 아름답기는 하나 교만하게 들린다.
- 부엉이는 장하기는 하나 어쩐지 슬픈 듯이 들린다.
- 까마귀는 탁하기는 하지만 박력이 있으니 까마귀 소리가 최고다.

♣ 영의정의 사과(謝過)

영의정 성희안이 부사 정봉에게 잣과 꿀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사 정봉이 "잣은 높은 산마루에 있고 꿀은 민가의 꿀통에 있는데 부사로 있는 내가 무슨 수로 얻는단 말이오." 했다. 영의정 성희안은 자신의 부끄럼을 알아차리고, 부사에게 사과했다.

▷자료제공 : 五世祖 遁齊公의 18代孫 相珏

(2) 가문을 빛낸 독립운동가

영원한 광복군 沈光植 장군

편집위원 沈禎燮
한국문인협회 회원
판사공파 회장

백두산의 서북쪽에 전개된 광야에 위치한 남북 만주는 한민족의 발상지로서 고구려의 상무정신이 중원대륙을 호령한 배달민족의 성지였다. 신라의 외세에 의한 삼국통일은 만주 고토를 잃은 비극이며 고려와 조선왕조로 내려오면서 중국의 조공국이 되다가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반만년 역사에 망국의 설움을 당하니 소위 경술국치였다.

1927년 10월 어느날 백두산 자락에 있는 독립군 막사에 홍안소년이 찾아와 자원 입대할 때 비록 남루한 의복을 걸쳤으나 눈빛만은 형형하였다. 사령관 이하 여러 지사들이 보는 가운데 자원 입대의 이유를 묻자 소년은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읊는다.

'백발을 휘날리며 밭이랑에서 뛰쳐나온 것은 초야의 충성심을 바치려함이로다. 왜적을 치는 것은 사람마다 해야 할 일. 고금이 다를소냐. 물어 무엇하리오.'

뜻밖에도 한말 거유요 의병대장인 최익현의 한시인 장부가였다. 모두 넋을 잃고 있다가 뒤이어 대한독립만세소리가 만주벌을 진동하였고 사령관 지청천의 눈물을 흘리게 한 소년 투사가 훗날 영원한 광복군이던 심광식 장군이었다.

장군은 본관이 청송인데 1911년 10월 15일 경기도 안성에서 인수부윤공 징(仁壽府尹公 澄)의 20대손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13대조 종민이 임진왜란 때 선조왕을 따라 의주까지 가면서 우국애민한 사실을 익히 들어 알았고 조실부모한 관계로 신학문을 접하지 못하였으나 서당을 다니면서 훈장으로부터 공자의 춘추의리를 배웠고 최익현의 우국시를 통해 독립군이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17세의 어린 나이로 정의부 제1중대 1소대에 소속되어 항일투쟁에 헌신하였다. 천성이 영민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사령관의 연락병이 되었는데 뒷날 사령관의 딸과 혼인하게 되니 사령관이 바로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이었다.

장군은 지청천을 따라 한국독립군의 부사관이 되었고, 저 청산리전투와 쌍벽을 이루는 대전자대첩을 거둘 때 참모장이던 조경한의 부관이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수립하는데 기여한 바가 많았다.

1932년 한국과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고 한 · 중연합군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한 결과 다음해 7월 3일 대전자대첩을 거두었으나 중국군의 배신으로 무장해제를 당하고 만주를 떠나게 된 것은 그 배후엔 일제와 일본의 괴뢰인 만주국의 간계가 숨어있었다. 그 때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 김구가 광복군 중추 장교들 양성하기로 중국 장개석정부와 협약을 맺었을 때 사령관 지청천이 조경한 오광선, 공진원 등을 대동하고 서안으로 갈 때 장군도 동행하였다.

중국 중앙군관학교 서안분교에 한인특별반이 설치되어 독립군 장교를 양성할 때 장군은 지청천의 추천으로 입교하여 1935년 졸업하고 임시정부의 당당한 장교로 군무부에 배속되어 광복전선에서 도왜작전을 펴니 가는 곳마다 시산혈하였다.

임시정부가 일제에 쫓겨 장개석정부와 함께 유랑할 때 김구, 지청천을 경호하면서 민족혁명당 중앙당 군사부원으로 활동하였고 민족진영 5당통일로 창당된 한국독립당에 입당하여 장인과 함께 김구 노선에 맹활약하였다. 1939년 임정이 중경에 정착할 때 광복군 창설에 관여하였고 1943년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군을 국무위원회 비서처 서무와 주석 판광실 비서로 겸임 발령하여 주석 김구를 지근에서 경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해 11월 6일 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서무과장으로 발령받고 광복군 참령이 되어 인사 업무에 열성으로 매진할 때 참모총장 유동렬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으며 좌파계 군무부장겸 제1지대장 김원봉도 경외할 정도였다. 1944년 3월 임시의정원 의원에 출마하여 충청도 대표로 선출되어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의회활동을 하였다.

그 당시 좌우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할 때 소수 좌파 일각에서 임정 부정론까지 펼쳤을 때, 민족진영 최선봉장은 조경한인데 장군은 조경한의 지도를 받으며 임정 수호에 다대한 공을 세운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지청천과 함께 귀국하였으나 국내 정세는 독립운동가를 용납하지 않았다. 임시정부가 개선장군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개인자격으로 들어오라는 미군정의 냉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북이 각각 이념으로 대립하고 분열하여 분단의 비극마저 맛보게 되었다. 광복군 원로인 유동렬이 미군정 통위부장에 들어가고 광복군 지대장 송호성마저 남조선경비사령관이 되었을 때 독립운동가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 그들이 장군을 미군정 군문에 들어와 같이 복무하자고 하였으나 미군정에 소속된 군문에는 친일장교들이 들어와 좌지우지하는 한심한 세월이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임정요인 다수가 불참했으나 일부가 참여하였다. 장인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때 국무위원 특별보좌관이 되었다. 총리 이범석이 장군의 항일시절 고매한 인품을 알고 국방부 과장과 경기도 어느 군수로 추천하였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1950년 6. 25가 일어나자 장인의 부탁으로 송호성, 유동렬을 방문하는 길에 남북당하여 생사가 불명하였지만 장군이 독립운동 유공자임을 알고 정부가 63년 건국공로 대통령표창, 91년 건국공로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장군은 민족사에 찬연히 빛날 영원한 광복군으로 남을 것이다.

〈 말과 침묵 〉

심 성 구
대종회 이사
파주문화원 고문

침묵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늘 내안에 잠재되어 있으므로 밖에만 쳐다보아서는 안되는 것이며, 안으로 들여다 봄 으로써 침묵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침묵을 부지런히 정성껏 실천함은 더없는 귀중한 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은 무거운 침묵의 배경일 것이다.
침묵은 모든 삼라만상에서 인간(人間)의 존재양식의 기본인 것이다.
침묵은 자기정화, 자기질서의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혼)을 지키려 한다면 침묵의 의미를 우리의 몸에서 익혀야하고 몸에 배이게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잡다한 소음 공해에서 해방이 되려면 침묵의 내용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의미 없는 말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친구를 만나서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었던가!
말은 한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는 당연히 피해야 한다.
인류역사상 사람답게 살다간 사람(성인)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침묵과 고독을 사랑한 사람들 이었다.
오늘날의 시끄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자신들마저 소음이 되어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으며, 그 침묵 속에 머무르는 사람들만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그 내부는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말이 적은 사람,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게 된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간에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말수가 적은이 에게로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고 싶어지게 된다.
사람들의 만남에서는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으로(마음속으로) 말이 여물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과 행동을 밖으로 쏟아내게 되는 것이다.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말 또한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습관 때문이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불쑥 말해버리면 내마음속에서 여무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은 머물러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을 무책임하게 비난하는 버릇은 국회의원님 지방의회 의원님을 포함하여 누구나 버려야 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말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서 여물도록 침묵이라는 여과기에서 걸러 내어야 하는 것이다.

* 'brevity is the soul of wit'. 말은 간결함을 으뜸으로 한다는 세익스피어작 (Hamlet 중의 Polonjus의 말)
서양격언에서는 "말은 간결할 수록 좋다"고 말하고 있다.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고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미래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저축하며 소언다행(小言多行 : 말은 적게 행동은 많이)으로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종회탐방-(2)

都摠制公派(大宗家)宗會

대종회와 종인들간의 원활한 소통, 돈독한 유대관계구축 및 종사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2012년부터 파종회와 지역종회 탐방기를 종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순방순서는 탐방을 요청하거나, 역동적으로 숭조돈족 사업을 펼쳐 우리문중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종인들을 위한 대종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회 탐방은 도총제공(諱 仁鳳)종회로, 현재 회장은 민섭(敏燮)회장이시고 우리 심문의 종가(宗家)입니다. 민섭회장의 형이신 흥섭(興燮)씨의 장자(長玆)는 청송심씨 문중의 봉사손(奉嗣孫)이 됩니다.

종보편집인 / 문화이사

종회탐방기(2) - 도총제공종회(都摠制公宗會)

- 일시 : 2012년 3월15일(목)오후2시
- 장소 : 도총제공 사무실(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63-4)

- 탐방자

심재서(沈載緖 / 대종회 문화이사, 종보편집인)
심상렬(沈相烈 / 광운대학교 교수, 대종회 종보편집위원)
심봉섭(沈奉燮, 대종회이사)

- 참석자

▷회장 : 심민섭(沈敏燮) ▷부회장 : 심상학(沈相鶴)
▷감사 : 심용택(沈龍澤)
▷이사 : 심윤택(沈潤澤) 심상오(沈相吾) 심상준(沈相俊) 심종섭(沈鍾燮)
▷종인 : 심호섭(沈鎬燮)
▷원주종회 회장 심정보(沈正輔)
원주종회 총무 심상구(沈尙求) (참석자 : 총10명)

1. 도총제공종회(都摠制公宗會) 구성

1) 연 혁

현재의 종회는 1974년 창립 되었으며, 현재 민섭(敏燮) 회장이 5대 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430년 전 10세조(휘 承善)공의 묘소를 원주로 이장 후부터 원주가 세거지(世居地)로 되었고, 제손(諸孫)들이 협력하여 선조의 시향 및 모든 종사의 대소사(大小事)를 관리하고 있다.

2) 종원과 조직구성

가) 종원

족보에 수록되었거나 기타 혈연에 의한 도총제공 후손은 약 1,470세대 4,700명으로 추정된다.

나) 조직

▷고문 : 源澤 ▷회장 : 敏燮 ▷부회장 : 相鶴 相基
▷총무 : 相賢 ▷감사 : 龍澤 相鏞
▷이사 : 宜在 宜錫 愼澤 潤澤 相春 相鶴 相吾 春燮 鍾燮

3) 회 의

정기총회(년1회 음력10월 2일 추향(秋享) 후 개최)

2. 도총제공(諱:仁鳳) 행적(行蹟)

1) 5世祖 도총제공은 4세조 청성백(靑城伯 : 휘 德符)의 일곱아드님 가운데 장자(長子)로서 휘(諱)는 인봉(仁鳳)이시고, 관직은 자헌대부(資憲大夫)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이시다. 고려말엽 젊은 나이에 등용 되시어 군부에서 별장(別將)과 호군(護軍) 등의 직책을 수행하시다가 공양왕2년(1390)에 대호군(大護軍 : 從3品), 조선개국초에는 대장군(大將軍 : 정3품)에 오르셨다. 태종7년(1407)에는 중군총제(中軍摠制 : 부사령관)에 제수되셨고, 세종때에는 도총제(都摠制 : 총사령관)가 되셨다. 공(公)께서는 무술옥사 때 형제간이라는 이유로 진도(珍島)로 유배(流配)되시어 쓸쓸한 나날을 보내셨다. 세종2년(1420), 태종(太宗)의 명(命)에 의해 공(公)께서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 그 후에는 청주(淸州)에서 여생을 보내셨다.

족보에 공의 묘소가 청주 동면 석실(淸州 東面 石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실전(失傳)되고 말았다. 공께서는 1남 2녀를 두셨으며 아드님은 평산부사공(平山府使公 : 휘 灝)이시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6世祖 평산부사공(平山府使公 : 휘 灝)께서는 황간현감(黃澗縣監 : 忠北 永同郡 黃澗面)으로 부임시에 세종대왕께 "신은 종손으로서 외직에 보임 되었아오매, 선대(先代)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가고자 합니다" 하고 아뢰어 승인을 받아내셨으니, 종손(宗孫)으로서의 효심이 참으로 지극하심을 알 수 있다.

2) 공의 배위(配位)는 평산신씨(平山申氏)이며 세종27년(1445) 2월 10일에 별세 하셨으며, 묘소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산 8-1번지 4세조 청성백 배위(淸州宋氏) 묘소 아래 모셔져 있어 상하(上下)로 고부(姑婦)가 함께 계시며, 도총제공께서는 배위 옆에 제단(祭壇)으로 모셔져 있다.

3. 숭조돈족(崇祖敦族) 사업

1) 연중 봉향행사

봄 · 가을의 5처묘소 절사(節祀)에는 회장(敏燮)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하고 있으며, 5세조 도총제공(휘 仁鳳) 봉향은 춘 · 추 청성백 배위(淸州宋氏) 시향일에 모시고 있다. 6세조 평산부사공(平山府使公: 휘 灝), 7세조 용담공(龍潭公 : 휘 淑), 8세조 현감공(懸監公 : 휘 瓘), 9세조 부장공(部將公 : 휘 自淸)의 4대 단사(壇祀)와 함께 10세조 교위공(校尉公휘 承善), 11세조 별호군공(別護軍公 : 휘 溱)는 모두 음력 10월 2일 추향제로 봉행하고 있다. 또한 5처묘소 제향(祭享) 때 향촉대(香燭代)의 헌성(獻誠)이 모범적이어서 종인들 간에 칭찬이 자자하다.

2) 후손 친목행사

5처묘소 제향 시는 물론 강원 감영제(監營際)행사 시와 음력10월 2일 시제 후 정기총회 시에 원주에 거주하는 일가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4. 도총제공종회의 자랑

1) 21세 宜春 : 강원도 3선의원, 원주읍장을 18년간 역임하셨다.

2) 21세 宜聖 : 1919년 3월 1일 면민(面民) 4백여 명을 동원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신 독립운동가시며, 원주향교 전교(典敎)를 역임하셨다. 1957년 정유보(丁酉譜) 편찬당시 교정위원장으로서 족보편찬에 공이 많으셨다.

3) 22세 汶澤 :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화학을 전공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강대, 연세대,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셨다. 원자력연구소 화학실장, 한국기술연구소부소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경희대학교 이공대학장도 역임하셨다.

5. 종회 역점사업

1) 숭조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자녀 교육실천

요즘 젊은 종원들이 생업에 몰두하다보니 숭조돈족사상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 우선 자신의 자녀부터 만날 때 마다 뿌리의식을 심어주고, 기본적인 항렬에 대해 설명을 해 주는 등 꾸준한 자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금년 9월 원주에서 실시되는 대종회 주관 지방순회 뿌리교육에 많은 종인이 참석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종회 탐방 후 도총제공파(大宗家)종회 사무실 앞에서 참석자와 함께

6. 도총제공 후손들에게 바람

1) 민섭(敏燮) 도총제공회장 : 숭조돈족사업에 우리 일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시향 시 또는 벌초 등 종중행사에 적극 참여하자.

2) 정보(正輔)원주종회장 : 자주모여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가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숭조교육도 자신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장성해서도 잊지 않게 되는 것이다. 화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종인들도 종사에 적극 참여하여 숭조돈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져 나아가야 하겠다.

7. 대종회에 바람

1) 심문(沈門)을 나타내는 뱃지를 현재의 황색 대신 대종회에서 채택한 최초의 칼라 원안인 청색으로 다시 제작 · 보급해 줄 것을 건의한다. 사계절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인 청송(靑松)은 우리 심문의 자자손손 번영과 발전을 상징한다. 현재의 황색 뱃지는 청색으로 되어있는 대종회기(大宗會旗)와 다를 뿐만 아니라 마치 소나무가 고사(枯死)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2) 종사 일로 종인들 간에 송사(訟事)가 종종 발생하는데, 대종회의 중재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청소년이 알기 쉽게 한글로 된 뿌리교육 수첩을 제작하여 종회에 보급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4) 대종회 이사회나 정기총회 시 명찰을 만들어 참석자가 서로 알아 볼 수 있게 하고, 파종회장이나 지역종회장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대종회 임원진 및 종회장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목 도모를 위한 대종회 주관의 정례적인 친목여행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 (참가비는 각자 부담 원칙)

8. 기타 의견 교환

1) 2011년 대종회 제4대 회장님의 취임사에서 장학사업 추진을 밝히셨는데, 건전재정을 위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2013년 부터는 매년 5천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종보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장학제도는 심문의 큰 자랑이며 기쁜 소식이다. 참으로 뜻 깊은 사업으로 파종회와 지역종회에서 장학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2) 기제사(忌祭祀)는 현실에 맞게 돌아가신 날 저녁 7시나 8시경 봉행하는 것으로 점차 바꿔 나가는 것이 좋겠다. 금년 초 공숙공종회(회장 雄燮)에서 처음으로 기제사를 기일 오후 7시에 봉행한 결과 종전보다 2배나 많은 40여명의 종인이 모여 성황리에 기제사를 모셨다.

3) 종보가 현재처럼 한글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제향 · 기제 시에도 시대 흐름에 맞게 한글로 홀기나 축문도 작성하고 한글로 제례를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 할 사항이다.

※ 탐방 취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도총제공종회 민섭(敏燮)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원주에 동행하여 진행을 맡아주신 상렬(相烈) 종보편집위원님(광운대 교수)과 사진촬영을 해 주신 대종회 봉섭(奉燮)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종회탐방은 4월 14일(토) 오후 4시 (청송) 악은공종회 예정입니다.

▲ 상렬 편집위원과 대담을 나누는 민섭 종회장

祝 賀

(사)한국중재학회장 선출

沈 相 烈

◇ 학 력
- 한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학사

◇ 경 력
- 한국전자무역원 원장
- 제8대 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 광운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교수

대종회 이사, 종보편집인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심상렬 광운대학교 교수께서 2012년 3월 2일 한국중재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한국중재학회는 국내 유일의 상사분쟁 및 중재 관련 학회로 학계, 법조계, 실업계 520여명 전문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심 교수는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서 근무했고, 광운대 교수학습센터장, (사)한국통상정보학회 회장, (사)한국전자무역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및 절충교역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농학박사 취득

沈 官 燮
- 전북대학교 조교수

태조와 태종, 인조와 인종 … '조'와 '종'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개토태왕' '공주의남자' '계백' '뿌리깊은나무' '무사백동수' '인수대비' 등 지난 해에는 史劇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다. 사극은 역사극의 줄임말로 역사에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연극이나 드라마를 말한다. 이런 사극의 인기를 바탕으로 삼국시대에 신라의 삼국통일 기초를 마련한 '태종무열왕'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에 맞선 무신정권과 대장경, 조선왕조의 마지막을 함께한 왕족 '덕혜옹주' 등이 드라마로, '광해군'은 영화로 만들어져 사극의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사극은 고대 삼국부터 조선시대,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이 다양하지만, 그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시대는 조선시대이다.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부터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 순종까지 27명의 임금들 중에 태종 · 세종 · 세조 · 성종 · 연산군 · 광해군 · 영조 · 정조 · 고종 등이 사극의 단골 주인공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 임금은 그 호칭에 '조'가, 어떤 임금은 '종'이 붙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우리가 조선의 왕을 부를 때 흔히 말하는 태종.세조 등의 호칭을 '묘호(廟號)'라고 한다.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이는 이름으로,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쓴다. 유교의 경전 '예기'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조(祖), 덕이 있는 자에게는 종(宗)을 붙인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라 나라를 세웠거나 전쟁이나 반란 등의 국난을 극복한 임금에게는 '조'를, 수성을 이룬 임금에게는 '종'을 붙였다.

조선시대 27명의 왕들 중에 태조 · 세조 · 선조 · 인조 · 영조 · 정조 · 순조 등 7명의 묘호에 '조'를, 나머지는 '종'을 붙였다. 태조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기에, 세조는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가 있다는 아들 예종의 주장에 따라 조를 붙였다. 선조와 인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위기를 극복한 임금이어서, 영조와 정조는 조선의 중흥을 이룬 임금으로서 그 업적이 크다고 평가한 것이다. 순조는 처음에는 종을 붙였다가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나중에 조로 묘호가 바뀐 것이고요. 세조 · 선조 · 인조 · 순조는 어찌 보면 반정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왕이 되거나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임금들인데, 오히려 이들에게 큰 업적을 세운 임금에게 붙이는 묘호 '조'를 붙인걸 보면, 조선시대에 묘호를 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조선의 왕 중에서 묘호가 없는 임금도 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군(君)은 왕자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중전이 낳은 왕자는 '대군', 후궁들이 낳은 왕자는 '군'이라고 한다. 연산군의 어머니는 후궁이었다가 중전의 자리에 올랐지만 뒤에 폐위되었으며, 광해군의 어머니는 선조의 후궁인 공빈이었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위에 올랐지만 반정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종묘에 신위를 모시지 않았고, 왕에서 다시 후궁이 낳은 왕자의 신분으로 내려가 그냥 군이라고 불리며 묘호를 받지 못했다.

– 대종회 문화부 –

任 員 會 費

상훈	2012	50,000원	경기
상경	〃	50,000원	서울
용섭	〃	50,000원	경기
봉섭	〃	50,000원	서울
성택	〃	50,000원	대구
재훈	〃	50,000원	경기
상귀	〃	50,000원	전북
언촌	〃	50,000원	경기
재구	〃	50,000원	강원
영종	2011~12	100,000원	충남
용규	2012	50,000원	서울
남규	〃	50,000원	경북
종덕	〃	50,000원	광주
재균	〃	50,000원	광주
재덕	〃	50,000원	서울
재정	〃	50,000원	전북
동출	〃	50,000원	강원
정시	〃	50,000원	강원
의철	〃	50,000원	대전
상호	〃	50,000원	경기
홍섭	〃	50,000원	서울
응하	〃	50,000원	경기
석용	〃	50,000원	경기
종옥	〃	50,000원	경기
두섭	〃	50,000원	전북
의표	〃	50,000원	서울
재영	〃	50,000원	충남
동섭	〃	50,000원	경남
종근	〃	50,000원	전북
홍식	〃	50,000원	충남
재숙	2011~12	100,000원	경북
의석	〃	100,000원	경북
성섭	2012	50,000원	서울
상조	〃	50,000원	서울
완규	〃	50,000원	서울
우홍	〃	50,000원	강원
정섭	〃	50,000원	光州
형찬	〃	50,000원	경기
정식	〃	50,000원	전남

宗 報 誠 金

상화	300,000원	철원종회장
순보	300,000원	마산 판관공종회장
상문	100,000원	신천공파춘천종회장
우섭	100,000원	춘천종회 총무
길섭	100,000원	김포
유섭	100,000원	J웨딩
인자	100,000원	아산
언촌	100,000원	수원
신천공파춘천종회	100,000원	
윤종	50,000원	대종회 지도위원
무섭	30,000원	
재훈	50,000원	김포
상후	20,000원	월계동
흥보	50,000원	인천
천보	50,000원	심훈 장손
훈	50,000원	
인섭	50,000원	춘천종회 회장
재봉	50,000원	관악
상만	50,000원	전북

奬 學 金 贊 助

양섭	300,000원	첨정공종회 회장
정세	300,000원	구미종친회 회장
언촌	50,000원	수원(대종회 이사)

☆ 회비 및 찬조금 명세는 2012년 3월 27일 입금기준으로 작성.

★ 회비, 종보성금, 장학금찬조에 감사드립니다.

※ 게재 누락이 있을시 필히 재무담당에게 확인 바랍니다.

예산 對 실적 (2012년 3월 26일 현재)

구 분	예 산	실 적	달성율
종보찬조	32,000,000원	2,130,000원	6.6%
장학찬조	20,000,000원	6,900,000원	34.5%
임원회비	18,200,000원	2,500,000원	13.7%

■ 50만원 이상 헌성, 종회 및 종인 종보 사진게재(2012년 1년간)

심 의 두 지도위원	심 상 균 부산종회장	심 재 덕 안동종회장	심 상 영 전북·익산종회장	심 웅 섭 공숙공종회장	심 완 보 벗곳종중회장
장학금찬조	장학금찬조	장학금찬조	장학금찬조	장학금찬조	장학금찬조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50만원	50만원
1월	1월	1월	1월	1월	1월

관향(貫鄕) 소식

▼자료제공

편집위원 沈南圭

청송 청년회 정기총회 및 회원 단합 윷놀이 행사 개최

청송 청년회(회장 심장섭)는 지난 2월 25일 청송읍 월막리 소재 찬경회관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 및 회원단합 윷놀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2011년도 정기총회 결산과 2012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기타 청년회 발전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고, 중식 후 2부 순서는 회원 부부동반으로 편을 갈라 화합의 윷놀이 행사 등으로 회원 상호간 친목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청송 청년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친목도모 윷놀이 모습

덕천 민속마을 정월대보름 행사 다채롭게 열려

우리 청송 심문(沈門)의 본향 마을이자 대표적 집성촌인 덕천 민속마을 정월대보름 행사가 대보름인 지난 2월 5일과 6일 양일간 마을주민과 관광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롭게 열렸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대보름 전날인 5일 밤9시 마을 입구에 위치한 당산목에서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堂祭) 올리기와 초롱행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소원성취를 담아 적은 소지 태우기가 열렸고, 다음날에는 마을회관에서 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대동회와 어른들의 새끼 꼬기, 화합의 한마당 윷놀이 행사 등으로 임진년의 풍성한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잔치를 즐겼다.

△ 덕천 민속마을 정월대보름 행사(당제(堂祭) 올리기)

심무경 대구지방환경청장 지난 3. 15일 본향 청송 방문

심무경(沈戊慶)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지난 3월15일(목) 16:00시경 경북지역 환경업무 추진실태 파악 및 업무보고차 시군지역 방문길에 본향 청송의 조선시대 만석꾼인 심부자(沈富者)집 송소고택을 둘러본 후 현지에 거주하는 심영섭(沈榮燮) 악은공 종손 등 함께 참석한 종인들과 사랑채에서 전통차를 곁들이면서 약 30여분 동안 지역의 각종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

이날 송소고택을 방문한 심 청장은 중앙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심문(沈門) 고위공무원단 모임을 소개하고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가까운 시일내에 한번 본향 청송지역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종사 발전에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청장은 경남 거창이 고향으로 환경부 7급공채 1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금년 1월에 대구지방환경청장(2급)으로 부임하였다.

△ 현지 종인들의 안내로 송소고택을 둘러보는 심무경 청장

경북 구미지역 소식

오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구미"갑"지구에서 우리 문중 출신 학봉(燮)씨가 새누리당으로 출마 하였습니다. 꼭 당선되어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과 전자산업 기술력을 바탕삼아 국가 발전과 구미공단 IT산업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공숙공(휘 : 澮) 기신제

(양력 2월 3일)

▲ 헌관으로 잔을 올리는 대종회 재근 총무이사

초헌 : 인보 아헌 : 재철 종헌 : 재근(대종회 총무이사)
대축 : 양섭 집례 : 재옥

송금안내

任員會費 · 贊助金 · 宗報贊助 · 奬學金 · 인터넷족보 수단금을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
  084-17-001831(청송심씨대종회)

※ 종보에 게시하고 있는 찬조금 등 공지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시 필히 재무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267-7857

인수부윤공파종회 정기총회개최 안내

1. 총회일시 : 2012년 4월 13일(금) 12:00
2. 장 소 :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319 망세정공 재실
3. 안 건 : 1) 2011년도 회계년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2)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4. 전 화 : 02-401-7377

7世祖 判官公宗會 任員改選

顧 問 : 相直
會 長 : 相烈
副會長 : 相範, 根燮
監 事 : 完燮, 曉燮
總 務 : 鎭燮
理 事 : 相九, 相厚, 相範, 相敦, 康燮, 養燮, 明燮, 仁燮 南燮, 重燮, 奉燮, 完燮, 銀燮, 大燮, 萬燮, 龍燮 載燮, 松燮, 種燮, 春燮

7世祖 判官公(諱:湲)派宗會 會長 沈 相 烈

바로잡습니다

청송심씨종보 제93호(2012년 1월 30일)자 5면(가문을 빛낸 독립운동가 심남일장군)에 호는 덕홍이며, 자는 남일을 → **자는 덕홍이며, 호는 남일**로 정정합니다.

공지사항

1. 2012년도 지방순회 뿌리교육은 강원도 원주에서 실시합니다.
   ▷후원: 원주·횡성종회)
   ▷일시: 2012년도 9월(토요일)
   ※ 자세한 내용은 추후 7월 종보에 공지
2. 인터넷족보 신청은 12월 한 달만 접수합니다. (등재는 익년 1~2월)
3. 대종회 이사는 현재 적정 수 이므로 2012년도에는 이사 추천을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파종회와 지역종회 에서는 종보를 많이 구독 하도록 종인들께 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파종회와 지역종회는 대종회 문화담당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처묘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 재	유 사	전 화 번 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 光	010-9236-2331
			琬澤	010-9374-4166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正秀	010-8311-6429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 澤	011-732-5768
4 세조	청 성 백	연 천	良 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載龍	010-9847-1589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 長 載 洪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七	010-9776-7170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